



ISSN 2671-6445

HCTF MAGAZINE  
Vol. 69

호문

Vol.69 2025 겨울과 봄 사이

경험소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Editor's Letter

## 예술의 쓸모

회의 자료 조사도, 여행 코스 짜기도, 심지어는 고민 상담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요즘이다. 효율성과 가성비의 극단으로 치닫는 때에 문득 생각한다. 예술은 쓸모가 있을까? 초고화질 이미지를 스크린으로 손쉽게 볼 수 있는데 시간을 내 미술관에 갈 필요가 있을까? 유튜브에는 4K, 8K 영상이 가득한데 비싼 돈을 들여 공연을 가고, 안 그래도 짧아 소중한 휴가를 여행에 꼭 쓸 필요가 있을까?

“생명체는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장할 수는 있어도 자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자라날 수는 없다”는 구절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 요소가 좋은 나쁘든, 분명한 것은 내가 겪지 않은 일은 너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어 무언가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나를 길러내기 때문이다.

2025년의 마지막 호 《화분》의 주제는 ‘경험소비’다. 소유하기 위한 소비보다 경험에 값어치를 매기고 충분히 즐기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다. 효용성의 맥락에서 보면 낭비일지도라도, 예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다. 낯선 예술적 경험으로 나도 몰랐던 내 취향을 발견할 때 새로움이 열린다.

시민들의 일상에 예술적 경험을 가져다줄 화성예술의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공연장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들의 두근대는 마음을 《화분》에 담았다. 문을 열기 전 먼저 공연장을 찾는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를 만나 화성시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하는 소감도 전해 들었다.

어느덧 연말이다. 지나온 시간에서 의미를 찾고 낯설지만 설레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시기. 1년 동안 다채로운 선물을 만들어냈던 화성시 예술단이 모여 한 해를 돌아보는 소회를 나눴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 남은 2025년을 조금이라도 더 음미하고 싶다면 여행만 한 게 없다. 보물 같은 장소들로 구성된 ‘화성특례시 추천 여행’ 코스를 참고해 보자. 어떤 게 내게 와닿는지 살피며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지 모른다. 몸도 마음도 하루쯤은 쉬고 싶다면 따뜻한 온천에서의 하루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다.

스치는 바람이 차게 감기는 계절이다. 바람처럼 나를 스치는 것들에서 예고 없이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화분》 에디터 차예지

## 표지 이야기

1월 15일 개관 예정인 화성예술의전당.  
추운 겨울 시민들에게 찾아올 기쁜 선물을  
리본으로 묶어 눈이 쌓인 겨울 풍경과 함께  
표지에 담았습니다.

# Contents



2025 겨울과 봄 사이 Vol. 69

## 발행처

(제)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T. 031-8015-8112

hcf.or.kr

## 발행인

안필연

## 편집본부장

정지영

## 편집팀장

남수림

## 기획

원예빈

## 편집·디자인

플러스81스튜디오

T. 02-542-0810

ISSN 2671-6445

《화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특례시内外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외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               |                            |  |     |
|---------------|----------------------------|--|-----|
| <b>INTRO</b>  |                            | 시민들이 바라는 화성예술의전당의 모습은?                         | 6   |
| <hr/>         |                            |  |     |
| <b>THE 담다</b> | <b>Focus</b>               | 예술이 일상이 되다, 화성예술의전당                            | 14  |
|               | <b>Interview 1</b>         | 내일의 클래식에도 여전히, 금난새<br>지휘자 금난새                  | 22  |
|               | <b>Interview 2</b>         | 화성시 예술단이 써 내려간 한 해의 징면들<br>화성시 예술단+관객평론단       | 30  |
|               | <b>Interview 3</b>         | 품격 있는 공연과 일상의 예술을 함께 누리다<br>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안필연 | 40  |
|               | <b>Talk 1</b>              | 이제 대중들은 소유가 아닌 경험을 원한다                         | 44  |
|               | <b>Talk 2</b>              | 삶을 채우는 소비<br>홍화정의 에세이 틈                        | 52  |
|               | <b>People</b>              | 나를 위한 '감정의 사치'를 한 적이 있나요?                      | 58  |
| <hr/>         |                            |  |     |
| <b>THE 가다</b> | <b>Walk</b>                | 뜨거움과 느긋함 사이, 율암온천에서의 하루                        | 62  |
|               | <b>Travel</b>              | 끌리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취향 따라 즐기는<br>화성특례시            | 70  |
|               |                            | 2025 화성시 추천 여행 시범투어                            |     |
| <hr/>         |                            |  |     |
| <b>THE 하다</b> | <b>List</b>                | 행복을 나누어주는 눈부신 왕관                               | 82  |
|               |                            | 화성특례시 생활문화동호회 '퀸&킹 하모니카 양상블'                   |     |
|               | <b>Preview</b>             | 신년콘서트부터 겨울방학 어린이공연까지                           | 90  |
|               |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6년 1~2월 시즌 공연 프리뷰                 |     |
|               | <b>Culture &amp; Issue</b> | 문화캘린더  | 102 |
| <hr/>         |                            |  |     |
| <b>Letter</b> |                            | 독자엽서   | 104 |
| <b>Review</b> |                            | 2025년 《화분》 제작 후기                               | 106 |
| <b>Place</b>  |                            | 배포처 및 구독 안내                                    | 110 |

# 시민들이 바라는 화성예술의전당의 모습은?

공원 사이로 생길 화성예술의전당.

시민들의 생활공간 바로 옆에서 일상 속 예술의 향기를 전할

이곳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아기가 걷는 걸 좋아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간을 자주 찾는데,  
화성예술의전당도 그냥 편히 들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지수



다른 지역에 살다 화성특례시로 이사 왔다는 부부.  
카메라 앞에서 손을 꼭 잡고 다정한 포즈를 취해줬다.

“화성예술의전당이 생기는 걸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크고 화려한 공연도 좋지만, 저렴한 관람료를 내고 볼 수 있는 공연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명사들의 강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하고요.”

김미경



“젊은 사람들은 정보력이 좋으니 쉽게 찾아보고  
공연도 많이 다닐 수 있지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공연이라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부석



여울호수공원 내 축구장에서 풋살을 하고 있던 멋진 여성들.  
아이와 함께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닌다는 김희진 씨는  
화성예술의전당이 서울 못지않은,  
규모 있는 팀들이 많이 공연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한다.  
“용인이나 광교로 어린이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녀요.  
아제는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공연을 보러올 수 있게,  
좋은 공연이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김희진



직장 동료라는 세 사람.  
가까이 붙어 서라는 말에 서로 안 친하다며 농담을 던진다.  
“<맘마미아!>나 <레미제라블> 같이 유명한 공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웅> 같은 창작 뮤지컬도요.  
그런 큰 공연을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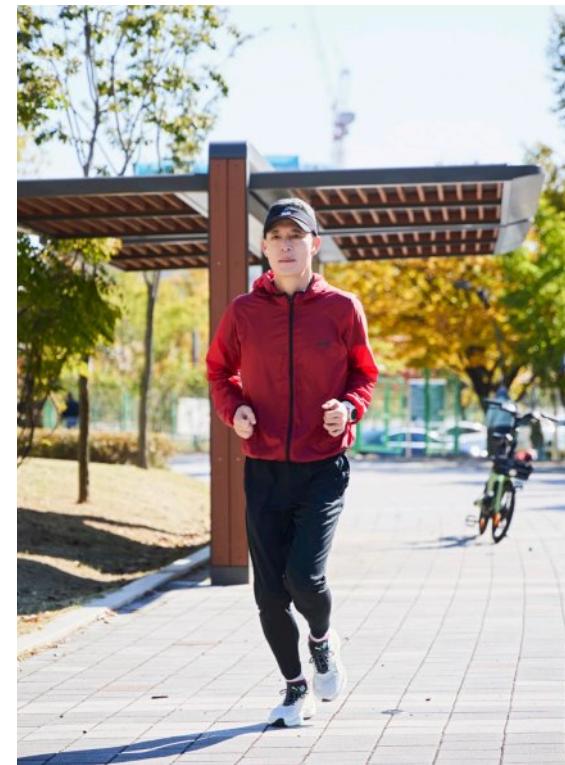
김용겸



서로를 똑 닮은 두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시민.  
여러 공연 중에서도 콘서트 관람을 좋아한다고.

“큰 공연장이 생기는 만큼 그에 맞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도 있는 예술가의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보영



러닝에 집중하던 정진욱 씨.  
시민들이 어떤 공연을 하는지 몰라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  
열띤 홍보를 부탁했다.

“좋은 공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SNS 등 소통 채널을 통해서 화성예술의전당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됐으면 합니다.”

정진욱

# 예술이 일상이 되다, 화성예술의전당

한적한 자라뫼공원 일대를 걷다 보면 이내 멋진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이 나타난다.

2026년 1월 개관을 앞둔 화성예술의전당이다. 시민들의 산책로 곁에서 일상 속 예술의 깊이를 더해줄 화성예술의전당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정리 차예지(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 산책하듯 들키는 공연장

어느 지역이든 공공 공연장의 존재는 중요하다. 일부 시간을 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생활권 내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예술을 친근한 것, 나와 주변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착공해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인 화성예술의전당은 동탄2신도시 자라뫼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공원 안에 공연장이 있다니,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보통의 공연장은 도시의 건물들 사이에서 위용을 뽐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화성예술의전당은 그러한 편견을 깨고 공원을 끼고 있다. 갈대밭을 따라 산책하며 바라보는 풍경 속에 공연장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에 예술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공연장 입구 또한 산책로를 마주 보고 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설계 때부터 시설별 기능과 프로그램을 주변 공원과 연계해 지어졌다. 공간과 기능을 이어주며, 공원의 자연 환경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 예술 커뮤니티의 새로운 공공 공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산책로 끝과 이어지는 돌레길을 따라 공연장을 빙 둘러 뒤로 가면 야외공연장이 있다. 야외공연장은 약 1,2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조성됐다. ‘공연장’이라고는 하지만, 지면과 같은 높이로 조성되어 발걸음이 닿는 대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야외공연장은 순차적인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보다 다이내믹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공연들로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차차 기획할 예정이다.

## 최상급 음향 시설 선보일 동탄아트홀

화성예술의전당의 메인 무대는 단연 대공연장(동탄아트홀)이다. 건물 1층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이곳은 총 1,450석(1층 981석, 2층 469석) 규모로 지어졌다. 동탄아트홀은 국내 최상급 공연장에 쓰이는 어쿠스틱 쉘 디자인을 활용했다. 어쿠스틱 쉘은 무대와 객석 위치에 따라 음이 닿는 위치를 분석해 천장과 벽면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가장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주 무대의 천장을 비롯해 좌·우 측면과 후면에는 음향 반사판을 정교하게 설치해 공연장 자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무대의 전면과 후면에는 영상 스크린이 구비돼 있어 영상을 상영하기에도 알맞다. 대형 클래식 연주회부터 오페라,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무대 중앙에는 승강 무대가 설치돼 있어 계단 형태의 연주단 배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공연장과 달리, 대부분의 조명 장비가 LED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색 필터 없이도 다양한 색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공연 장면에 따라 즉각적으로 색을 변경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를 낸다. 무대 위 아티스트의 움직임을 더욱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무빙 스팟’, ‘워시’, ‘빔’ 등의 최신 자동화 조명 장비를 보유하여, 어떠한 장르의 공연이든 빛의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몰입감을 선사한다.



동탄아트홀



홍보 영상 촬영 중인 화성시 예술단(오케스트라)



아외공연장



##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좋은 공연을 만드는 요소는 좋은 연주자와 아티스트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퀄리티의 무대 시설과 음향 등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대기하고 연습하는 장소 또한 중요하다. 무대에 오르는 이들의 컨디션이 무대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무대보다도 중요할지 모른다.

화성예술의전당은 풀사이즈의 리허설룸과 대형연습실, 소형연습실 그리고 총 12개소의 분장실을 갖추고 있다. 리허설룸은 최대 6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크기로 지어져 실제 공연 전 리허설을 진행하기에 최적이다. 규모뿐 아니라 조명과 음향 시스템 역시 무대와 비슷하게 구현됐다.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이 최적의 상태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실제 환경과 비슷한 리허설룸을 조성함으로써 공연의 퀄리티를 더욱 높일 수 있게 했다.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한 해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시민들은 2026년 1월 개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기존에 지역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대형 공연뿐 아니라 수준 높은 해외 초청 작품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일상에서 보다 확장된 예술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과 설렘이 감동으로 펼쳐질 1월, 화성예술의전당의 시작에 동참해 보자.

화성예술의전당은 이제 시민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12월 27일(토),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테스트 공연을 시작으로 그 숨겨왔던 모습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2월 31일(수)에는 화성예술의전당 준공 기념 제야 콘서트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 홍지민, 박건형, 민경아 등과 함께 뮤지컬 갈라 콘서트의

---

### 화성예술의전당

주소 경기 화성시 노작로 11-1

규모 연면적 13,766㎡(지상 3층, 지하 1층)

주요 시설 대공연장(동탄아트홀), 소공연장, 아외공연장  
문의 1551-2313

# 내일의 클래식에도 여전히, 금난새

지휘자 금난새

초록색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마다 곳곳이 초록인 금난새의 대기실은 한겨울에도 녹음을 잃지 않은 소나무처럼 곧은 기운을 내뿜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여전히 유쾌한 미소로 청중 앞에 서는 그를 표현하는 색을 고른다면 또한 초록이 아닐지. 대한민국 클래식 대중화의 선구자로 일생을 살아온 지휘자 금난새를 만났다.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이대원(싸우나스튜디오)



**화성예술의전당 개관을 기념해  
12월 27일, 성남시향과 함께 공연을  
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장르의 곡을 다채롭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주제곡, 오페라 <라 보엠>에서 미미와 로돌포가 만나는 장면의 이중창 곡도 준비했어요. 테스트 겸 공연이니 성악가들과의 조합은 어떨지 보려고요. 그리고 성남시향과 함께 공연한 적 있는 찰리 올브라이트라는 피아니스트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굉장히 재주가 많은 피아니스트예요. 우리하고 연주를 많이 했는데, 화성 시민들께도 소개하고 싶어요.

**화성예술의전당에는 2차례  
방문하셨다고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6개월 전쯤 한 번 봤고, 한 달 전에 또 갔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싶었죠. 크기도 크고, 위치적으로도 조경이나 주변 환경이 잘 되어 있고요. 야외공연장도 유니크하게 디자인돼 있어서 시민들의 ‘음악의 정원’이 될 수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공연장의 첫걸음에 세계적인  
지휘자가 함께한다는 게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객이  
찾을지도 기대되고요.**

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표를 좀 사서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증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에요. 공연장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미래의 청중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1990년대에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청소년 음악회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청소년 음악회는 해야 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에 가까웠어요. 아이들이 클래식 공연에 오겠어요? 근데 난 거꾸로 이게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청중이 될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일에 애정을 갖고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다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애정을 갖고 공연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음악회를 하면 어려우니까 해설을 하면 좋겠다 해서 탄생한 게 ‘해설이 있는 음악회’였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독일, 영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나라별 테마를 정해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늘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써오셨습니다. 본인을 ‘클래식  
영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한다, 그러니 와서 들어 봐라’ 하는 태도가 아니라 청중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공연장은 12월 31일에 공연이 없었어요. 휴일 같은 개념으로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쉽다고 음악가도 쉬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듯, 클래식을 들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94년 12월 31일 밤 10시에 예술의전당에서 처음으로 ‘제야음악회’를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거 은근히 자랑해야지.(웃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금난새가 제야음악회를 했다고. 저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마케팅 관점에서 음악을 바라보고 했어요.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공연을 많은 사람이 즐기려면  
공연장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화성예술의전당 역시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선생님도 부산과  
성남에 있는 공연장 건립에 많은  
관심을 쏟으셨죠. 지역사회에 있는  
공연장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인터뷰 하고 있는 이곳 성남물빛정원은 원래 28년 동안 방치된 하수처리장이었어요. 시민들이 놀라요.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고요. 심지어 짓는 데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부산에 있는 금난새 뮤직 센터(GMC, Gumanse Music Center)를 샘플 삼아 내가 보여줬죠. 그곳은 4년 전에 생겼는데 부산 실내악의 등지가 되고 있어요.

화성도 이번에 화성예술의전당이라는 큰 규모의 공연장이 생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까이 있는 청중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요. 화성시에 젊은이들이 많다면 젊은 청중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해야 하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고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것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많은 공연장을 보는데요. 건물은 참 예쁜데 거기에 광고판과 각종 배너 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예술과 먼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공간 자체의 예술성도 중요한 요소예요.



**오케스트라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음악을 잘 서비스할 것인가'예요. 큰 공연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야외음악회를 할 때, 의자 를 3,000개 놓으면 5,000명이 와요. 표를 사서 오는 관객들이 있는 정 기 연주회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음악회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시민의 자랑스러운 오케스트 라가 돼야죠.

**오랜 기간 활동하신 만큼 선생님을 따르는 후배들도 많아졌을 텐데요. 어떤가요?**

연주자는 각자 악기의 선생이 있지만 지휘자는 없어요. 나의 유일한 선생은 독일 유학 시절 선생뿐입니다.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는지. 이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익숙해졌죠. 반대로 내 역할은,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있는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연주자를 모시고 음악회를 할 때도 있지만 나는 좋은 젊은 연주자가 있으면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게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공연에 섰지만, 여전히 무대에서 떨리거나 긴장될 때가 있나요?**

제 늙어서 그런지 없어요. 하하. 근데 최근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스페인에서 연주가 있어서 갔다가 부산에서 연주가 있어 다시 돌아왔는데, 바로 또 체코에서 연주회가 있었어요. 며칠 새 이런 이동을 하다 보니 그야말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지휘를 못 하면 어떡하나, 단원들이 나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연주를 마쳤는데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죠. 질문과는 좀 다른 대답이긴 하지만 긴장이라기보단, 체력이 중요하구나 느꼈던 순간이죠. 나는 지금까지 1년에 100회 이상 공연하면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기분이었죠. '네 이놈, 건강해야 한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성예술의전당의 첫 관객이 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고 공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티 나지 않게 조금씩 칙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악도 아름다운 자연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내게 좋은 비타민을 주고 음악은 음악대로 힘을 줍니다.

화성예술의전당도 어느 훌이나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지어졌지만, 건물이니까 조금은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음악이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좋은 음악은 곳곳에 넘쳐야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예술의전당이 음악을 통해 그런 가능성의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화성시 예술단이 써 내려간 한 해의 장면들

화성시 예술단+관객평론단

화성시 예술단은 2025년 총 12회의 기획공연과 21회의 공연투어를 선보였다.  
예술단과 그들을 지켜본 관객평론단이 한 해를 돌아보며 느끼는 감상은 어떨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이대원(싸우나스튜디오)



올해 진행한 공연과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무엇이었고, 관객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셨나요?

— 김현섭 국악단 감독 예술계의 최근 흐름을 보면 지역의 문화유산이라  
든지, 그 지역만의 고유성을 어떻게 예술 안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국악단도 화성시민의 특징을 많이 담아내려고  
했는데요. 올 5월에 <담음(談音); 이야기를 품은 소리>를 통해서 일  
년 동안 국악단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했고요. 이어 <화음(華音)  
I : 화성을 노래하다>와 <화음(華音) II : 화성을 연주하다>를 통해  
화성시민의 특징을 노래하고 연주했고, 마지막으로 국악 뮤지컬 <틸  
틸과 미틸>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1년간 느낀 감정들이 결국 행복  
으로 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 이건상 오케스트라 갑독 오케스트라는 크게 <마티네 콘서트>와 정기 연  
주회 두 가지 공연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길  
이가 짧은 단악장 위주로 여러 작곡가를 소개하려고 했어요. 반면 정  
기 연주회는 좀 더 격식을 갖추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분위  
기로, 일반적인 길이의 클래식 곡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정기 연주  
회 <교향, 숲의 서사>에서는 다소 접하기 어려운 곡인 시벨리우스 1  
번 교향곡을 해서 좋은 반응도 얻었어요. 화성시에 융건릉이나 정조  
관련 유산이 많기 때문에 구성할 때 그 시대와 비슷한 시기의 서양 작  
곡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정기 연주회 때는 모차르트를 조  
명했는데, 아마 정조가 모차르트보다 형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지  
역과 클래식을 연결해보는 거죠.

올 한 해 진행한 공연 중 예술단의  
전환점이라 생각된 공연이  
있다면요?

— 김현섭 개인적으로는 <화음 I, II>를 꼽고 싶어요. 한  
달 간격으로 단원들이 빠르게 공연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새로운 시  
도도 많이 했고, 악기도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하  
지 않았나 싶어요. 힘든 만큼 끈끈해지기도 했고요.

— 이금지 오케스트라 악장 저희도 초반 <마티네 콘서트> 진행할 때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준비할 시간이 2주 정도뿐이었어요. 연휴도 겹쳤었고  
요. 짧은 일정 안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만큼 보람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느 곡이 주어지든지 할 수 있는 힘도 생긴 것 같아요.

— 이건상 ‘베토벤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마티네 콘서트>  
를 했던 때가 떠오르네요. 베토벤티라는 작곡가가 차근차근 단계를 옮  
리며 길을 밟아가는 음악 세계를 가졌어요. 그에 맞춰 단원들과의 합  
도 단계별로 잡아가는 느낌이었고 팀워크도 단단해지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의 얼굴’ 공연 모습



<담음(談音); 이야기를 품은 소리> 공연 모습



〈어린이와 함께하는 국악풍당〉 공연 모습



로비콘서트 〈엄마와 아기를 위한 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공연장뿐 아니라 복도 등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는 음악회도 진행했죠. 어떤 기억이었나요?

김진령 국악단 악장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는 정적으로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면, 시민들과 소통하는 무대는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께 악기를 만져보시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이금지 가까이에 있으면 숨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싶은 걱정도 있고, 표정도 가끔은 신경 쓰이고요. 대신 그러면서 연주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관객들도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공연 규모나 성과를 떠나,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을 텐데요. 어떤 공연이 기억에 남았나요?

김진령 〈어린이와 함께하는 국악풍당〉 공연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이 '환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어나서 춤추고 떼창하고. 동탄복합문화센터 로비에서 진행한 공연이었는데 로비가 아이들 목소리로 울릴 정도였죠. 그 반응을 보니 공연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앙코르 곡을 3곡이나 했어요. 요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붐이잖아요. 연주자가 주제곡을 악기 소개 타임을 위해 앞부분만 짧게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다 따라부르는 바람에 멈추지 못하고 뒷부분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어서 연주하기도 했어요.

이금지 저도 어린이 대상 공연이 기억에 남아요. 〈오케스트라 게임〉이라고 미디어와 결합해서 악기들끼리 여러 종목을 겨루는 영상이 상영되고, 그에 맞춰 연주하는 공연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도 뿌듯했어요.

이건상 그 공연은 기능적으로는 제일 어렵기도 했어요. 영상에 맞춰 지휘를 해야 하는데 60명 가까이 되는 단원들이 그에 맞추려면 쉽지 않거든요. 또 악기군 별로 반응 속도가 조금씩 달라서 신경 쓸 게 많았는데 그런 만큼 좀 스릴 넘치기도 했어요.

정유진 관객평론단 저는 11월에 했던 〈교향, 숲의 서사〉 공연이 기억에 남는데요. 호흡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만큼 단원들과 지휘자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관객 입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준비 과정이 눈에 보이는 듯한 무대였어요.

— 김현 관객평론단

베토벤을 주제로 한 <마티네 콘서트>가 참 좋았어요. 공연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단일 악장을 연주했는데도 그들을 다 모았을 때 마치 한 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마티네 콘서트>는 낭만주의 음악 위주로 꾸려졌는데, 저도 클래식 애호가로서 많은 음악을 듣지만 흔하게 연주되지 않는 드 보르자크의 체코 모음곡을 연주해서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인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악단 공연은 <화음 II>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분들을 모신 공연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국악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진보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관객평론단은 평소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공연을 다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화성시 예술단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 정유진

나이대가 젊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젊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덕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나간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 화성시가 아이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 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게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 김현

유명한 곡을 연주하면 훨씬 더 많은 청중을 모을 수 있겠지만, 자주 들을 수 없는 곡을 선정하는 것도 공연의 다채로움을 더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화성시 예술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 관객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어 좋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곡을 듣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 공연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것도 참 좋네요. 예술단 입장에서 이런 피드백을 들으니 어떤가요?

— 김현섭

우선 저희 공연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얘기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국악단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단원들과도 새로운 걸 해보자는 제안을 많이 했고요. 제가 올해 부임해 국악단의 감독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재원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 운영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좋은 분들을 많이 데려와서 좋은 인연을 만들면 좋은 공연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했는데 그걸 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오케스트라 개임> 공연 모습



국악 뮤지컬 <틸탈과 미틸> 공연 모습



화성예술의전당이 곧 개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실 듯한데요.

\_ 이건상 지휘자로서 음향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개관 전 방문했을 때, 음향 반사판이 아직 설치되기 전이었는데도 음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설이 갖춰지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_ 김현섭 화성시 내에 새로운 공연장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_ 정유진 화성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이 생겨서 문화적인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_ 길현 1,450석 규모라고 들었는데 큰 규모의 공연이 가능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찾을 거고, 더 좋은 공연이 늘어날 것 같아 기대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을 되돌아보며 짧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_ 김진령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하면서 저 스스로 발전한 한해였어요. 첫 부임한 감독님과 단원들과 함께하며 힘든 점도 있었지만, 호흡을 맞추며 단단해지기도 했고요.

\_ 정유진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예술단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예술단을 통해 국악과 클래식이 활성화되는 게 보였습니다.

\_ 길현 저 또한 공연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공연이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_ 이금지 개인적으로는 출산 후 복귀해 체력적으로나 여유로도 쉽지는 않은 한 해였는데요. 그만큼 보람이 느껴지는 공연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_ 이건상 2022년부터 예술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_ 김현섭 '치열하게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와 연습 과정은 치열하지만, 무대에서 하나의 소리로 모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 품격 있는 공연과 일상의 예술을 함께 누리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안필연

화성특례시가 새로운 예술의 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공연장을 넘어, 시민이 스스로 문화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열린 무대를 지향한다.

안필연 대표이사가 바라보는 예술의전당은 어떤 모습일까?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화성예술의전당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요?**

화성예술의전당을 시민들의 '예술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예술과 공연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예술의전당은 화성특례시 내 공연장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누림아트홀(360석), 반석아트홀(548석), 화성아트홀(678석)과 비교했을 때 본 전당은 1,45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으로서 광역권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프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규모적 장점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큰 공연장'이 아니라, 규모에 걸맞은 작품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공연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성예술의전당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을 넘어 랜드마크처럼,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공원에 오듯 편하게 들러서 음악회도 감상하고, 뮤지컬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멀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옷을 차려입거나 격식을 지켜야 하는 곳이 아니라 편하게 와서 힐링하고, 예술을 즐기고 가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에 있어서도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도시 속에서 자연스레 숨 쉬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화성에만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늘려가면서 우리 화성시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성예술의전당은 1,2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이 조성돼있습니 다. 대중적인 공연은 물론, 개방된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민 참여  
콘텐츠들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재단에 와서 느낀 점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였어요. 공연 하나를 봐도 열렬히 호응해주고, 박수도 아끼지 않죠. 흥에 겨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관객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적극적이에요. 즐길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는데 단지 그에 걸맞은 공연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화성예술의전당 개관으로 그런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화성예술의전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는지,  
대표님의 관점에서 장기 비전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백지 같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조금 먼 미래를 상상해보자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예술가를 화성예술의전당을 통해 세계 무대로 배출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조금 바꿔서 '가장 화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곳이 화성시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외부 세계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화성예술의전당을  
어떤 공간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길 바라시는지, 한마디로  
정의해주신다면요?**

높은 퀄리티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더해 일상에서 예술을 마음껏 느끼고, 그를 통해 자신 안의 여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에게 화성예술의전당이 '억제하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이곳에 와서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으면 해요.

# 이제 대중들은 소유가 아닌 경험을 원한다

경험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유

흔히 소비라고 하면 상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 구매와 소유는 소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다양한 경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글 정덕현(대중문화 평론가)





'G-STAR(지스타) 2025' 현장 모습 ©G-STAR TV



'G-STAR(지스타) 2025'에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G-STAR TV



## 그들은 왜 현장에 모였을까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G-STAR(지스타) 2025'에는 전국의 '게임 덕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코스튬을 차려입고 모여들었다. 평범한 복장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많은 코스어(코스튬 플레이어, Costume Player)들이 모인 이 행사는 게임 캐릭터들의 축제 그 자체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속 캐릭터들이 현실로 걸어 나오는 경험을 이들 스스로 갖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코스어들은 길게 줄지어 서서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는 게임 덕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게임 속 포즈를 취하며 행사를 활보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장 밖에서도 그 코스튬 그대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 경험의 여운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지스타 2025'에 모여든 게임 덕후들은 아마도 이미 저마다의 게임 타이틀을 구매한 소비자들일 게다. 물론 이 국제적인 행사는 새로 소개되는 게임을 먼저 접해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도 적지 않겠지만,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고픈 이들도 많다. 코스어가 되어 현장에 나온 이들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게임 속 세계를 현장에서 만끽한 이들도 그렇다. 이들에게 소비는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세계관을 공유하며 새롭게 이어지는 다양한 경험들까지가 '찐' 소비다. 그러니 어찌 보면 세계관이 살아있는 소비란 끝이 있을 수 없다. 이들은 그 세계관이 펼쳐진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갈 것이니 말이다.

이것은 현재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경험소비'가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물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이들의 소비는 물품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그 물품이 가진 이야기, 취향은 물론이고 철학, 가치관 등을 공유하며 그 세계관을 구현해 낸 다양한 경험과 시간 그리고 기억들까지가 이들이 소비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그들은 왜 굿즈를 사기 위해 발품을 팔까

최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도 이 경험소비는 폭발했다. 이미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싱어롱 상영회'라는 이름으로 극장에서 개봉된 작품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들이 원한 건 단지 그 영화의 콘텐츠적 소비가 아니라, 그 영화를 함께 보며 노래 부르는 '경험의 공유'였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사진이나 글을 SNS에 남기는 식으로)하는 경험을 소비하는 것. 이것이 이미 콘텐츠를 접했던 이들조차 극장으로 다시 모여들게 하고 이른바 N차 관람(하나의 작품을 여러 번 관람하는 것)을하게 만든 이유다.

또 이 영화로 인해 영뚱하게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오픈한 사태를 겪게된 것 역시 경험소비 트렌드 때문이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굿즈를 사기 위해 관람객들이 몰려든 것.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굿즈 비즈니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깔린 것이 바로 경험소비에 대한 욕망이다. 굿즈는 물론 상품으로 소비되지만, 거기에는 상품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다.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가 달린 키링을 구매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콘텐츠의 일부분을 나의 일상으로 가져오는 경험이다.

최근 들어 새로운 덕질 문화로 떠오른 ‘예절 솟’을 떠 올려 보라. 여행지에서 혹은 식당 등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굿즈 또는 포토카드를 놓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 독특한 덕질 방식은 캐릭터와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고픈 새로운 소비문화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굿즈 소비자들은 캐릭터와 공유한 경험들을 SNS에 올리는 것까지를 하나의 소비로 생각한다. 그것은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출하는 행위로서의 소비다.

흔히 이러한 소비를 우리는 덕질 혹은 ‘팬덤 소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취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현시대의 새로운 욕망이 담겨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주어진 정체성’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국가나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언어, 빈부 같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정체성이 그것들이다.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현시대에는 ‘주어진 정체성’만큼 ‘선택하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 고 여기는 것, 내 취향을 저격하는 것 혹은 나아가 내가 공감하는 철학이나 세계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좋아하고 그 세계관을 나의 정체성으로 선택한 팬덤은 그래서 저 ‘주어진 정체성’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국가와 언어, 성별, 나이 등이 하등 상관없이 K-팝 팬덤이라는 취향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굿즈는 그래서 그저 단순히 팬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째서 덕질을 하는 이들이 한 정판 굿즈 하나를 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감수하는가가 이해된다. 그 굿즈는 물론이고 기다리는 경험까지가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선택하는 정체성, 취향 중심으로 묶이는 새로운 소비자들

바로 이 ‘선택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취향을 중심으로 경험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은 과거 전통적 개념의 소비 패턴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과거 마케팅 이론에서 고소득층이 럭셔리 문화를 향유하고 저소득층이 대중문화를 소비한다거나, 20대는 진보적이고 60대는 보수적이라는 식의 세대 구분에 의한 소비 분석은 이 새로운 소비자들에게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앞서 예로 들었던 ‘지스타 2025’ 행사장의 이색적인 풍경이 그렇다. 막연히 게임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행사장에는 중장년들도 적지 않았다. 게임이라는 하나의 취향으로 묶여 있을 뿐, 세대 구분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걸 그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신드롬으로 인해 남산 성곽 길이나 경복궁에서 인증 솟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인들이 찾을 것 같은 공간에 외국인들이 앉아 있고, 우리도 잘 입거나 쓰지 않는 한복과 갓을 외국인들이 입고 쓰고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그건 국가나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어 자신의 취향을 선택해 그것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드러내려는 새로운 소비자들의 등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출연진에 열광하는 팬들 ©인스타그램 @kopodemonhuntersnetflix



선택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취향 소비, 경험소비는 '가격의 장벽' 또한 무너뜨린다. 점심으로 간단하게라면 음식, 후식으로는 비싼 마카롱을 사 먹는 이른바 '가심비' 소비의 등장이다. 일상은 검소하게 생활하다 가도 자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경험에는 값비싼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다. 매달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 럭셔리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아낀 돈으로 값비싼 공연에 돈을 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생필품이나 관심이 없는 영역에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다가도,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특정 경험 영역인 여행, 공연, 미식, 덕질 등에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취향을 기준으로 초저 가와 초고가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소비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 아날로그 경험과 불편함의 역설

경험소비의 또 한 측면은 갈수록 디지털화되면서 비슷비슷해지는 경험들(비대면)과는 다른 나만의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문화란 '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고 값싸게 경험할 수 있지만, 고유성이나 개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경험소비의 가치가 커지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열면 똑같은 음원을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콘서트장을 찾게 된다.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회성의 음악은 복제된 음원이 줄 수 없는 나만의 시간과 기억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뮤지컬에서 시작해 연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공연 팬덤의 급증과, 거의 1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열풍은 이러한 경험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저마다의 취향으로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그곳에서 겪은 자신만의 경험을 SNS를 통해 공유한다. 복제된 경험만 수용하던 단계에서 이제 자신만의 경험을 생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표가 된다.

복제 같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기술들이 지워버린 고유한 경험을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되찾으려는 역설적인 소비 방식도 등장한다. 음원 대신 발품을 팔아 LP를 사서 듣고, 스마트폰 대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인화하고, 어찌 보면 고행에 가까운 걷기나 마라톤에 도전하는 일련의 선택들이 그것이다.

한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무엇을 소유했는가였다.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들도 있었지만, 그건 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도 적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어떤 이들은 아무 노력 없이 갖고 태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주어진 소유가 과연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낼 수 있을까.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진정성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반대로 가진 건 없어도 충분히 충만한 삶 역시.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찾아 나서고, 굿즈를 사서 가방에 달아 그 세계관과 철학을 공유하려 한다. N차 관람을 하며 함께 나누는 경험을 기억하고 기록하려 한다. 때론 그 경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소유 그 자체를 넘어서는 진정성 있는 경험들만이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규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험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유다.

# 삶을 채우는 소비

글·그림 홍화정

사실 20대까지만 해도 물건으로 남는 게 없다면  
돈 쓰기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 만난 사람들은 믿지 않을 얘기겠지요. 후후…)

통장도 마음도 가난해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간혹 필수품도 아닌데 그저 갖고 싶단 욕망만으로 산 물건을 손에  
쥐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만질 수도, 보관할 수도, 몸에  
걸칠 수도 없는 경험에 돈을 쓴다는 건,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사치라며 눈을 흘기곤 했습니다. 마음에 이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편협해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즈음 빠듯하게 돈을 모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우연한 기회로 연극도 관람하고, 여러 전시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엔 ‘좋긴 한데… 그래도 돈 아깝긴 하다…’며 찜찜했어요.

그로부터 한참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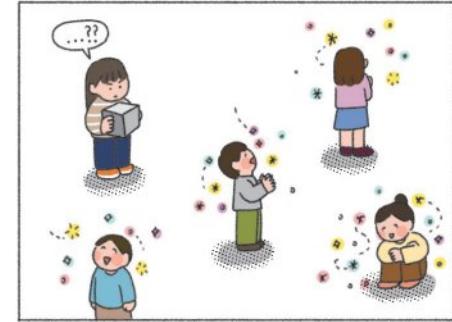
왜 사람들이 순간의 경험에 돈을 쓰는지, 세상과 타인을 보는 제 시선은  
얼마나 편협했는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것 없는 침전된 일상에서  
지난 경험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쑥 떠올라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오늘이  
되더라고요. 경험이란 오히려 형태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변형되어

더 선명하고 짙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먼지도 쌓이지 않고, 낡지도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꺼내 볼 수도 있고요.



필수품마저 가성비 따져가며  
소비하던 20대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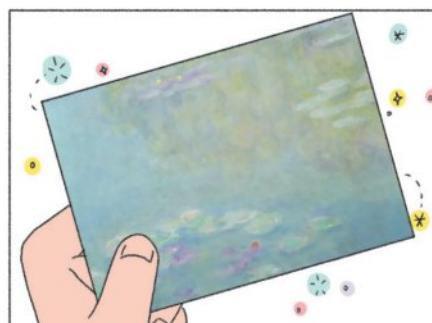
형태 없는 것에 소비하는 게  
도통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런저런 경험을 겪다 보니  
무형의 소비도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은



유럽 여행 중 샀던 엽서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경험들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던지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고민 끝에 떠났던 유럽 배낭여행.  
언제 또 여길 올 수 있겠냐는 강박 때문에 참 바쁘게도 돌아다녔습니다.  
국제학생증을 사용할 기회기도 해서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도 갔었지요.  
짧은 일정에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그렇게 좋았다던데,  
이건 꼭 봐야 한다던데… 나는 왜 별 감흥이 없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반쯤 감긴 눈으로 느적느적 걷고 있던 그때,  
코너를 돌아 시선을 돌린 곳에 반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 원작이  
걸려 있었습니다.

흘린 듯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두터운 물감 위로 미세한 붓질 자국까지  
느껴졌어요. 어두운 강물과 물결에 실려 흐르는 가로등 빛, 또 그보다 밝은  
빛으로 수놓은 밤하늘 별. 이 그림을 그리며 고흐는 어떤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쩌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자 다짐했을까  
작품으로만 남은 그를 헤아리느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작품에  
매료되었던 것이지요.

파리 미술관의 많은 작품 중 모네의 <수련 연작>, 마티스의 <오렌지가 있는  
누드> 앞에서도 꽤 긴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는 그림 앞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할까’ 이해하지 못했던 세계가  
저에게도 열린 것이지요.

글을 쓰다 보니 한여름 서유럽, 긴장한 손으로 배낭끈을 쥐고 땀에 젖어  
다니던 고생길이 지금은 반짝반짝하고 청명한 추억으로 남아있음을  
떠올립니다. 숙박비와 식비를 줄인 돈으로 기념품을 사야 한다며 이것저것  
사 왔던 것 같은데, 무엇을 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여행을 대표할 만한 물건을 사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던 제 모습은  
서툴러서 귀여웠던 20대 초반의 친구로 남아있고요.

올해 봄,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가로등에 달린 현수막을 가리키며  
“와, 이번에 마술쇼 하네!” 흥분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무슨 마술쇼야~” 몰랐던 남편의 관심사에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어 웃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어릴 때부터 마술쇼를  
보는 게 소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저기 가면 다 어린이들밖에 없을 거다,  
우리 나이대는 다 보호자뿐이라며 핀잔줬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래 마술쇼 티켓 두장을 예매했습니다.

며칠 후 티켓이 도착해 남편에게 별거 아니란 듯이 건네줬을 때,  
커졌던 그의 눈과 콧구멍까지 기억나요. 그 시기 남편에게 악재가 겹쳐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오랜만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요.

대망의 공연 날, 역시 저희 주변엔 어린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눈을 반짝이는 남편과 달리 저는 별다른 감흥 없이  
공연 막이 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잠시 큰아들이 생긴 기분이었달까요.)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고… 저는 공연 내내 입도 다물지 못한 채 온갖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보는 공연이라 말한 과거의 저를  
쥐어박아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마술의 세계는 얼마나 환상적이던지요!  
혼자였다면 절대 올 리가 없는 마술쇼지만, 남편 덕분에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하던 남편을  
볼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휴대폰 촬영 금지라 마술  
하나하나 자세히 기억할 순 없겠지만, 남편의 행복한 표정과  
리모컨으로 차문을 여는 것조차 마술인 마냥 오두방정 떨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은 영상 없이도 선명히 남아있을 테지요.





받은 편지, 카드, 사진 등을 버리지 못해 매년 "추억 상자"를 정리해 둡니다.



얼마 전에는 상자를 정리하며 티켓 한장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봄, 남편과 함께 관람했던 마술쇼 티켓이었지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경험을 살 수 있다니,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았달까요-



오래 사용해 손때가 탄 물건들과



그 모든 소비가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걸 종종 떠올리게 됩니다.



## 나를 위한 '감정의 사치'를 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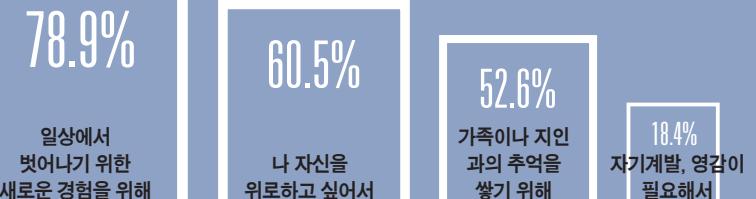
《화분》 독자 참여 양케트

최근 1년 이내에 '나를 위한 감정의 사치'를 위해  
예술·여행 관련 소비를 해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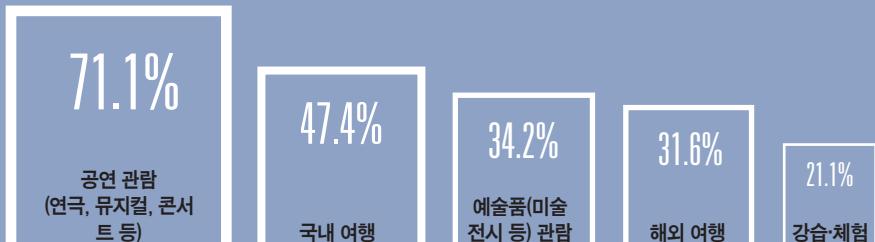
있다 90.5%     없다 9.5%

체험 중심의 소비 형태를 지향하며 '가심비'에 집중해 개인의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화분》 독자들은 어떨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기꺼이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충분히 향유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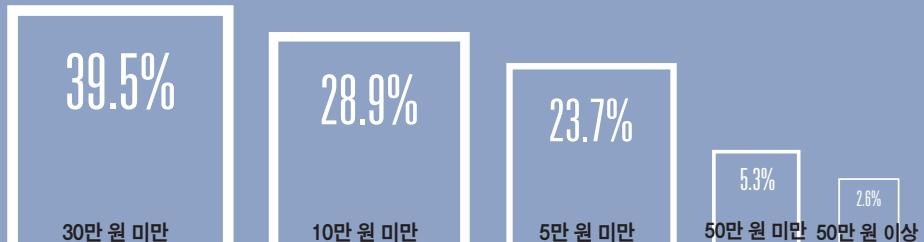
예술적 경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sup>증복 응답 허용</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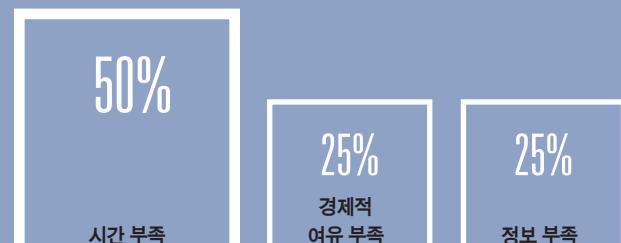
있다면, 어떤 형태의 경험이었나요?<sup>증복 응답 허용</sup>



예술적 경험(1회)을 위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경험에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평균 4.58 / 5 점

## 경험소비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무엇을 느꼈나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피켓팅을 뚫고 관람하는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장소에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새로움, 찾아가는  
즐거움과 새로운 발견의 기쁨 등  
다채로운 감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경험소비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이와 함께 여러 경험소비를  
하는 중입니다. 자체 운영  
프로그램도 저렴한 가격에  
체험할 수 있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어떤  
결과물보다는  
아이와 보낸 시간이 추억으로  
쌓이고 그때의 감정이 아이의  
기억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경험소비를 일회성으로  
바라보면 큰 지출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럽지만,  
공연을 보고 난 후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보다  
더 큰 가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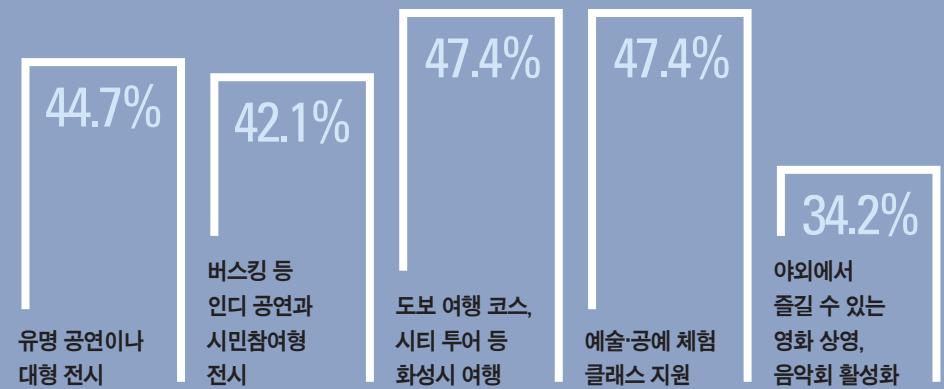
나이가 들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예술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통해 겪고, 타인 또한  
나와 같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위로와 영감을  
얻습니다.  
인생의 실태라 한 꺼풀  
풀리는 느낌입니다.  
바쁘더라도,  
돈이 조금 퍽퍽하더라도  
예술과 여행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의 부대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와 일상에 쫓겨  
예술 경험을 위한 돈과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는데  
귀한 시간으로 느껴졌고  
앞으로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모으기만 했는데 나를 위한  
선물과 힐링 등 나에게 주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지만,  
다녀오고 나서는 그 어떤 물건보다  
값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일상에서의 예술 경험을 위해,  
재단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신경 쓰면 좋을까요? 중복 응답 허용



뜨거움과  
느긋함 사이,  
율암온천에서의  
하루

추운 날씨에 어쩐지 위축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잠깐 휴식을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왕이면 뜨끈한 가마 속에 앉아 땀을 흘려보는 것도 좋다.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온천으로 떠나보는 하루.

글 차예지(편집실) 사진 이대원(싸우나스튜디오)



## 시간의 온기 가득한 공간

동탄에서 차로 약 40분, 보통저수지를 지나 달려 도착한 화성시 팔탄면. 레트로한 간판이 맞이하는 울암온천은 한눈에도 긴 역사를 간직한 듯 보였다. 한편에 마련된 넓적한 주차타워가 방문객의 수를 가늠하게 했고, 건물 앞에서 칡차와 옥수수빵을 팔고 있는 간이 판매점에서는 정겨운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전면 유리인 벽면을 따라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휴게공간이 있고, 1층에는 식당과 카페, 오락실이 있었다. 만일 ‘찜질방 감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풍경에 반가운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2000년대 초 찜질방이 유행하던 시절 안에서 찜질과 식사, 놀이까지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던 그때 그 시절 감성 그대로였다. 오락기의 성능만 조금 좋아졌을 뿐. 화려한 외관이나 신식 인테리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 오히려 온천수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는지.

로비 가운데를 둘그렇게 비워둔 나선형 동선의 길을 따라 오른다. 진지한 궁서체로 써진 온천수의 효능, 울암온천의 시작을 알리는 용출수 사진 등을 구경하다 보면 2층에 위치한 카운터가 나온다. 울암온천은 수도권 남부에서 최초로 온천 허가를 받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카운터에도 ‘화성시 허가 제1호’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크게 붙어있었다.

## 700m 지하에서 올라온 역사

2005년 발간된 『화성시사』에 따르면 예로부터 울암온천 뒤편에 있는 작은 온천에서 자연 용출수가 사계절 흘러나렸는데, 이 물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빨래터로 이용했다고 한다. 또한 그 물은 피부병, 각종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고 한다.

울암온천은 1996년에 이 지역에서 용출된 온천수로부터 시작돼 2000년 7월에 정식으로 온천 허가를 받아 문을 열었다. 2000년도라면 화성시가 아직 시 승격 전의 ‘화성군’이던 시절이니, 온천이 이 지역의 역사를 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울암온천의 온천수는 지하 700m에서 자연적으로 용출된 약알칼리성 물로, PH 9.46의 높은 알칼리성을 띤다. 전문용어는 몰라도 물을 만져보면 뭔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다. 이곳의 물은 부드럽고 미끌거리는 촉감이 특징이다. 처음 찾는 방문객들은 이 미끄蹬거리는 물에 적응을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어 ‘믿고 찾는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내 목욕탕 안에는 노천탕이 있어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즐기기 좋다. 머리 위로 스치는 쌀쌀한 공기를 느끼며 몸은 따뜻한 온천수에 맡기면 겨울 온천의 묘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좋은 건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라, 노천탕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울암 온천





## 숯 냄새 따라 도착한 곳

율암온천을 찾았다면 참숯가마에서의 짐질 체험을 빼놓을 수 없다. ‘참숯’은 말 그대로 참나무를 검게 구워 만든 것을 뜻한다. 이곳에선 참나무를 공수해 직접 숯을 만들고 그 열기로 짐질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내에서 참숯가마로 향하는 길을 따라 야외로 나가면 어느덧 연기 냄새가 솔솔 올라와 몸을 감싼다. 온천이 문을 열기 시작한 즈음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25년 경력의 직원이 우리의 취재에 함께해주어, 참숯가마에 쓰이는 참나무가 가득 쌓인 야외 창고도 구경할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들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이들을 기계에 넣고 태우면 열이 약 일주 일간 유지되는데, 처음에는 숯의 온도가 아주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초고온실, 고온실, 중온실, 저온실 등으로 나눠진 공간에서 짐질을 할 수 있는 것. 오늘의 초고온실이 내일은 고온실로, 오늘의 고온실이 내일의 중온실로 이름을 바꿔 달며 손님을 맞는다.

가마 한쪽에 붙은 주의문에는 “숯가마에 누워있지 마세요! 황토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있었는데, 어쩐지 그 말이 귀엽게 느껴졌다. 잠시 막을 열어 짐질을 체험해 보니 열질이(?)인 에디터는 중온실만 해도 숨이 턱 막혀 안에 눕는 것은 꿈도 못 꿀 것 같았다.

짐질을 위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각 방에서 땀을 쪽 뺀 뒤 휴게실에서 쉬거나 한편에 마련된 식당을 찾기도 한다. 식당에서는 생선구이 같은 한식부터 뜨거운 이곳과 어울리는 삼겹살도 판매하고 있다.

각각의 가마 앞에 놓인 평상에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구운 달걀이나 고구마, 식혜 같은 주전부리를 나눠 먹는 모습이 보였다. 고구마의 출처는 참숯가마 한편에 위치한 ‘고구마굼터’다. 고구마, 감자, 호박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기계가 마련돼 있는데, 재료는 휴게실에서 구매도 가능하고 집에서 직접 가져와도 된다.

숯 냄새도 좋지만, 뜨끈한 고구마에서 올라오는 단향도 좋다. 느릿하게 구운 고구마를 입에 넣으면 달큰한 맛이 밀려오고, 숯가마에서 뺀 땀이 마르기도 전에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요즘 스파나 짐질방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 더 정겹게 다가왔다. 고구마굼터에서 쓰는 장작 또한 숯을 만드는 참나무 자트리를 활용한 것이라고.



## 율암온천이 주는 오래된 위로

율암온천의 또 다른 인기 공간은 온천수를 이용한 야외 족욕장이다. 이 물에는 목초액이 섞여 있어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근 채 편안히 앉아 쉬고 있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노천탕은 탕 내에 있어 개별적이지만 이곳 야외 족욕장은 실외라 가족이나 커플 등이 함께 족욕을 즐길 수 있다.

또 야외 공간에는 곳곳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다. 등나무가 가득 올라간 차양과 낡은 흔들 그네가 있는, 시골집에서 직접 가꾼 소박한 정원을 연상시킨다. 온천탕뿐 아니라 참숯가마와 야외 공간까지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이곳은 세련되고 화려한 시설로 눈을 사로잡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쉼이 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온천이라는 공간의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내는 곳이라는 인상을 준다.

율암온천은 수도권 어디서든 접근하기 비교적 쉬운 편이다. 가까운 곳에 온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방문객을 모으는 또 하나의 비결일 듯하다. 율암온천 김치목 대표에 따르면 이곳의 한 해 방문객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평일에도 방문객이 꽤 많은 편이며 주말과 휴일에는 인파가 더욱 몰린다.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온천과 짐짓을 즐기고 싶다면 평일 오전 시간을 노려보면 좋을 것이다.

율암온천은 젊은 세대에게는 노천탕과 옛날 숯가마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온전한 휴식을 선사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쌀쌀한 날씨에 온천욕이라니, 이보다 매력적인 경험이 또 있을까.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면 아마도 이유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서' 정도의 이유일지도라도, 이곳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 할 것 같다.

## 율암온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434-14

031-354-7400

영업시간 6:00~21:00

끌리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취향 따라 즐기는  
화성특례시

화성시는 넓다. 동탄에서 서해안까지, 시화호에서 남양만까지 이르는 광활함을 자랑한다. 갈 곳이 너무 많아서 혹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여행을 미루었다면 주목하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화성특례시의 독특한 매력을 살린 테마별 여행 코스다. 개발한 코스는 총 9개. 그날의 기분과 취향에 맞는 코스가 우리를 기다린다.

글·사진 김기쁨(여행 작가)



## 쉼, 감성, 시간여행까지

### 9가지 색깔의 화성 여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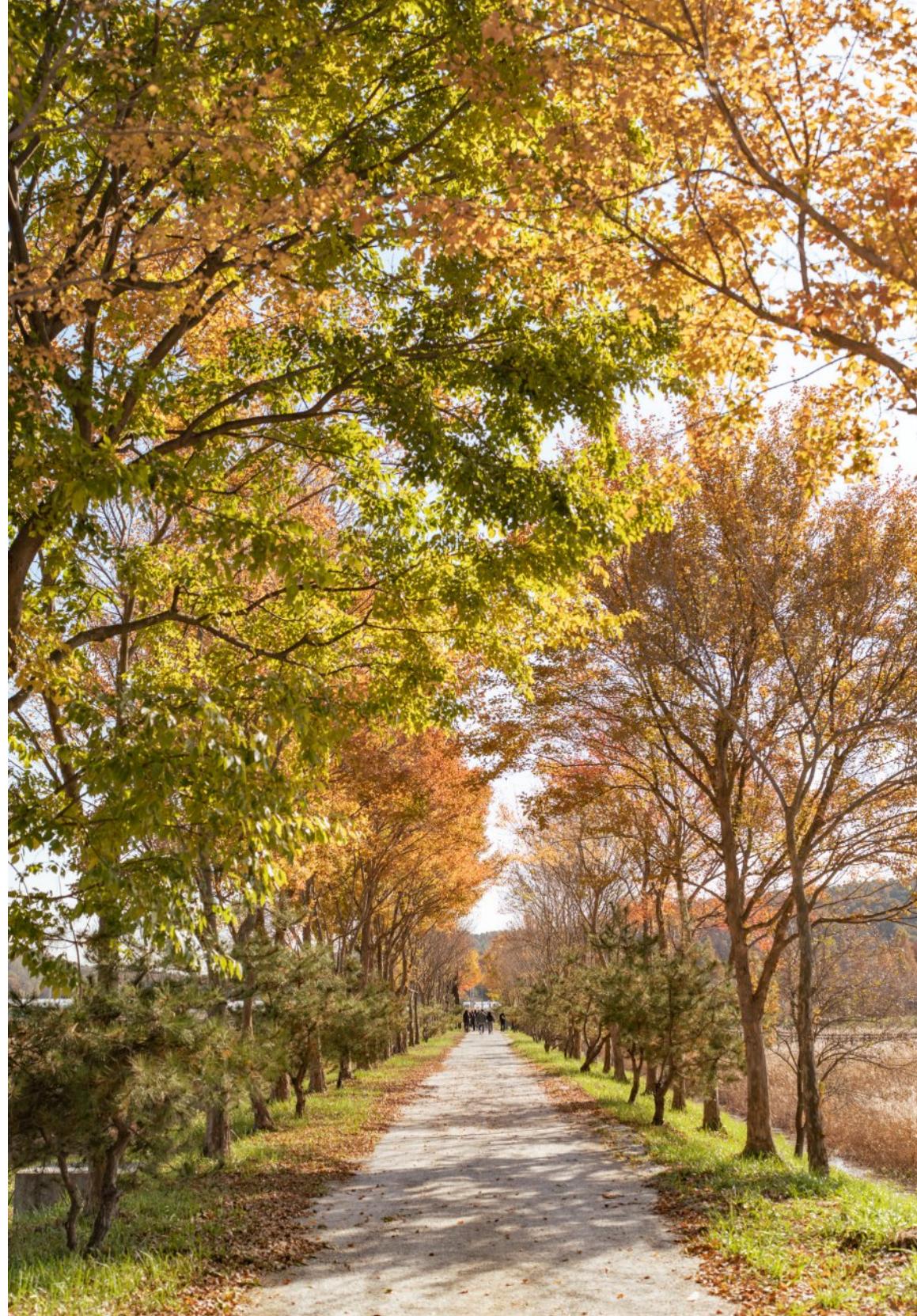
지난 10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화성특례시 추천 여행’ 9개 코스를 개발했다. A 코스는 ‘문화·자연·미식 올인원 패키지 투어’로, 용주사와 융건릉, 궁평항, 전곡항, 제부도와 서해랑 케이블카를 아우르는 코스다. B 코스는 쉼에 집중한다. ‘화성 쉼표여행’이라는 이름에 맞게 한우마을과 율암온천, 황금해안길과 비봉습지공원을 누비며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게 했다.

핫플도 놓칠 수 없다. C 코스 ‘핫플 감성투어’는 소다미술관과 엄미술관, 로얄엑스클럽, 남양성모성지를 지나 제부도 노을로 향하는 인생사진 코스다. D 코스 ‘제부도 원데이 트립’을 따라가면 바다와 하늘이 열리는 제부도의 매력을, E 코스 ‘펫프렌들리 화성’을 따라가면 댕댕이와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를 만날 수 있다.

넓은 만큼 깊은 역사가 궁금하다면 F 코스 ‘화성 시간 여행’을 추천한다. 고대의 공룡알 화석산지와 중세의 화성당성, 근·현대의 화성시역사박물관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화성ICT생활문화센터를 아우른다.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미래까지 모두 경험하는 셈이다.

G 코스는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그린&소울 로드’, H 코스는 누구나 편히 떠날 수 있는 ‘무장애 힐링 여행’으로 여유를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I 코스 ‘청소년 캠프: 어서 와, 화성은 처음이지?’에는 교육과 체험 자원을 한데 모았다. 가족 여행을 위한 훌륭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무엇 하나 빼놓기가 아쉬울 정도로 알찬 코스들은 2026년, 화성특례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한 이후 코스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11월, 쉼표여행(B 코스), 감성투어(C 코스), 시간여행(F 코스) 코스의 일부를 우선 선보였다. 마음 비움이 필요한 연말, 시민들이 참여한 ‘쉼표여행’ 시범 투어에 동행했다. ‘아, 좋다~’ 소리가 절로 나온, B 코스의 주요 스폿을 미리 공개 한다.





## 갈대 따라 일렁이는 사색의 시간

### 비봉습지공원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먼저 들른 곳은 카페 밀마다. 약 4,000평 규모의 정원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로 도심에서 숲의 상쾌함을 만날 수 있다. 아늑한 우드 캐빈과 낭만적인 불멍존이 쉼이라는 테마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 화성시에는 이처럼 매력적인 카페들이 많다. 덕분에 오션뷰와 논뷰, 숲뷰까지 공간 고르는 재미가 쓸쓸하니 여행을 떠나기 전 카페 몇 곳을 점 찍어 두는 것도 좋겠다.

카페에서 에너지를 충전한 후 도착한 첫 번째 여행지는 비봉습지공원. 비봉습지공원은 시화호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공원이다. 총면적은 47만 5,343㎡로 그중 일반인에게 개방된 면적은 약 22만 5,000㎡다. 1990년대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라 불릴 만큼 수질 오염이 극심했다. 오수와 폐수가 유입되었고 물고기가 떼로 폐사했으며 악취가 진동했다. 악화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시화호 상류 하천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게 1996년.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다양한 야생동물과 철새가 서식하는 보금자리로 거듭났다.

아픈 기억을 이겨낸 비봉습지공원은 더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롭다. 가로수길을 따라 공원에 들어서면 전망대가 보인다. 내부는 전시관이자 휴식 공간이다. 습지에 사는 동물들과 아이들의 체험 학습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보호하자며 빠뚤빼뚤 써 내려간 ‘다회용품을 쓰자’라는 다짐이 사랑스럽다.

본격적으로 공원을 걷기 시작하면 눈앞 가득 갈대밭이 펼쳐진다. 계절이 깊어질수록 갈대의 색도 짙어진다. 그 사이로 잘 정비된 탐방로와 관찰 데크가 갖춰져 있다. 걷는 내내 양옆의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며 물결을 만든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황금빛 풍경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귓가를 맴도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쇠아파도를 닦은 바람 소리, 갈대밭 곳곳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도심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자연의 소리가 귀하다. 그래서일까. 몇 번이고 발길이 멈춘다. ‘종일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떠나는 길이 마냥 아쉽기만 하다.

습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생태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하루에 여섯 번,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해설은 화성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비정기적으로 만들기 체험과 탐조, 미션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설은 최소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서해안 따라 걷는 숲길

### 황금해안길(해안누리길 4코스)

비봉습지공원을 떠나는 발걸음에 훌러넘치던 아쉬움은 궁평항에 도착하면서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렸다. 바다를 따라 걸을 생각에 들뜨기만 한다. 이곳은 황금해안길. 해안누리길 4코스에 해당하는 걷기 여행길이다.

황금해안길은 궁평항에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길이 17km의 해안 둘레길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데크 산책로와 휴게 시설을 조성하며 순차적으로 개통 중이다. 제부마리나에서 살곶이에 이르는 5km 구간은 낙조경관길, 살곶이에서 공생염전까지 4.5km 구간은 소금바닷길, 공생염전에서 궁평항을 잇는 7.5km 구간은 해안관광길이다.

시민들과 함께 걸은 길은 궁평항 광장에서 시작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끝나는 구간으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다. 해송 군락지 사이로 데크가 잘 닦인 덕에 경치에만 집중하기 좋다.

왼쪽으로는 바다와 갯벌, 오른쪽으로는 소나무가 보이는 길은 때로는 곧고 때로는 굽이친다. 소나무가 자라는 자리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돋보인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훤히 모습을 드러낸 갯벌과 모래알은 금색으로 빛난다. 그래서 이름이 황금해안길인가 보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명소답게 평일임에도 사람이 적지 않다. 숲 사이를 걸으며 운동하는 시민들은 물론, 갯벌 체험을 하는 아이들과 해변을 뛰어노는 강아지들이 보인다. 일상과 비일상이 적당히 뒤섞인 장면 속을 걷기에 지루할 틈이 없다. 기분 좋게 울려퍼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덩달아 입꼬리가 올라간다.

9개 코스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즈음엔 황금해안길도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테다. 그땐 늦은 오후에 와야지. 화성을 걸으며 자연스레 다음 화성 방문을 계획한다. 우리를 바라보며 떨어지는 해를 마주한 채 즐기는 산책이라니. 살짝만 떠올려도 이미 환상적인 여행 아닌가.





## 자연이 빚어낸 발효의 맛

### 제부도 전통양조

자연을 입안에도 머금어 보기로 한다. 목적지는 전통 발효 방식으로 식초를 만드는 제부도 전통양조다. 제부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직접 고두밥을 찌고 누룩을 떠서 발효의 원료가 되는 술밥을 만든다. 그 후 1년 이상의 발효와 숙성을 거쳐야 자연발효식초가 완성된단다.

10명 이상의 단체 여행자라면 술밥을 빚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술밥을 집에 가져간 이후의 절차도 꼼꼼히 설명해 준다. 술로 먹을지, 식초로 먹을지에 따라 보관법과 숙성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 여행자는 체험을 할 수 없지만, 아쉬워하기엔 이르다. 양조장에 들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넓은 마당에 줄지어 놓인 600여 개의 항아리에 있다. 옹기 장인이 만든 전통 항아리 안에서 식초가 발효되는 중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새콤한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제부도의 비암과 햇볕을 받으며, 식초들은 시간의 깊이를 품는다.

다양한 종류의 식초를 직접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미, 포도, 인삼, 돼지감자 등 여러 재료로 정성껏 빚어낸 식초는 저마다 맛과 향이 다르다. 한술갈씩 맛보며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재미가 있다. 패키지도 예뻐 여행 기념품으로 좋다.

9개의 여행 코스에는 화성특례시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담겼다. 각 코스에깃든 이야기와 체험은 여행자들에게 화성시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 바다와 갯벌, 도시와 자연, 역사와 문화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도시. 화성시가 준비한 아홉 색깔 테마는 당신의 취향에 꼭 맞는 여행을 만들어줄 것이다.

### 비봉습지공원

경기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031-8047-5078

운영시간 화~일 10:00~18:00(17시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설·추석 전날 및 당일 휴관

입장료, 주차료 무료

### 황금해안길

경기 화성시 서신면

### 제부도 전통양조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441-7

010-7732-2771

운영시간 화~토 09:00~17:00,

매주 일~월요일 휴무

## 2025 화성시 추천 여행 시범투어 소개

### 맛있는 음식과 힐링이 가득한 - 화성 쉼표여행

28개의 이색적인 디저트 명소,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 화성시에서 여유로운 티타임으로 화성 여행의 아침을 시작한다. 국내 최대규모 인공습지 비봉습지공원과 서해를 바라보며 걷는 황금해안길에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울암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거나, 전통양조 체험을 할 수도 있다.



### 화성, 예술과 바다에 물들다 - 핫플 감성투어

화성이 자랑하는 이색적인 소다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로얄엑스클럽에서 영감을 깨워본다.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티의 건축 미술에 심취하며, 어느 미술 작품으로 흉내 낼 수 없는 서해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케이블카와 빨간등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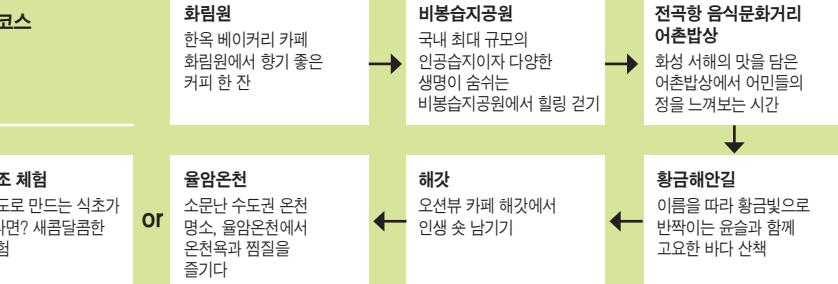


### 공룡시대에서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를 걷다 - 화성 시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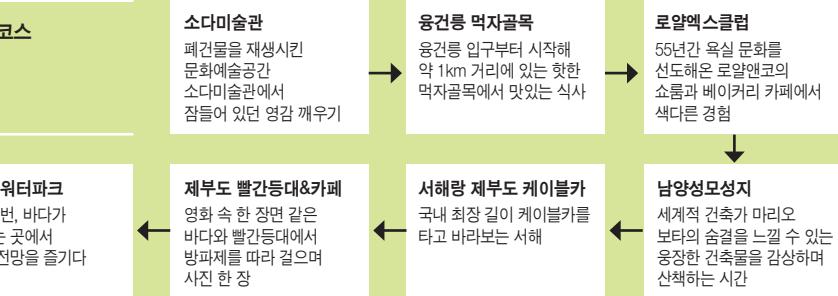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근현대사의 아픔과 회복을 조용히 되새기며, 바람결에 실린 평화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다. 화성당성의 삼국시대 흔적을 따라 정상에 올라 광활한 풍경을 만끽해보자. 마지막으로 수천만 년 전 신비를 간직한 공룡알 화석 산지를 탐험하며 과거와 현재를 느낄 수 있는, 화성 시간여행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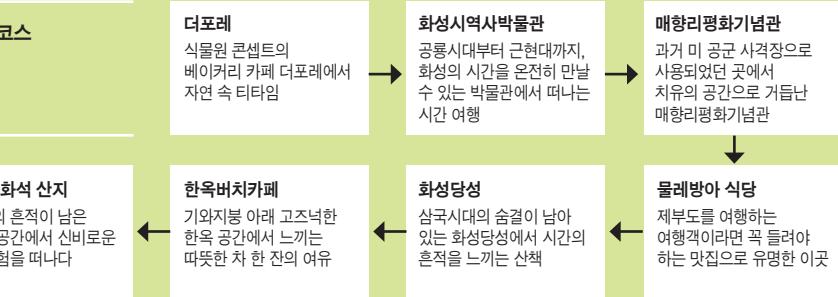
#### 여행 코스



#### 여행 코스



#### 여행 코스



행복을  
나누어주는  
눈부신  
왕관

### 화성특례시 생활문화동호회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

배움에 끝이 없는 것처럼 즐거움도 끝이 없다. 다만 그 즐거움은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상이 지루하다, 재미없다고 푸념하는 이에게 멋진 본보기를 보여주는 '여왕과 왕들'이 있다. 바로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이다.

글 이현주(편집실) 사진 김성재(싸우니스튜디오)



겨울이 깊어지느라 해가 일찍 저물어가는 저녁, 어디 선가 감미롭고 따스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떠나 본 적 없는 고향이 떠오르고, 스멀스멀 잊혔던 추억이 살아나는 것 같은 멜로디를 따라가니 저마다 손에 악기를 든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연습이 한창이다. 악기는 바로 누구나 학창 시절 한 번쯤 불어봤을 하모니카.

다른 악기들에 비해 비교적 친근하지만, 이 작은 악기의 음악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은 그런 하모니카에 대한 인식을 전혀 새롭게 바꿔주는 일을 해오고 있다. 동요에서 재즈, 국악까지. 이들이 들려주는 음악에는 한계가 없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실력. “예술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없이 실력을 갈고닦아야 하죠.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은 회원의 50% 이상이 하모니카 강사를 맡고 있을 만큼 탄탄한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을 이끌고 있는 복식규 대표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연습실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장들을 보니 그의 말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렇듯 눈부신 결실을 위해 오늘까지 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을지도.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의 시작은 2017년이지만 실제 태생을 되짚어보려면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2년 나래울중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회원들이 ‘나래울 하모니카 양상불’이란 이름으로 모여 (구)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재단 지원 사업을 다수 수행하며 화성시의 문화예술계에 크고 작은 공연으로 이미 이름을 알려왔던 것. 이 모임을 전신으로 ‘로즈 양상불’, ‘퀸 양상불’을 거쳐 지금의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이 탄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드라이빙 씨어서 무대를 통해 활발히 공연을 펼쳤고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퀸&킹 하모니카 양상불은 베이스 하모니카 2명, 코드 하모니카 2명, 소프라노 1 파트 3명, 2 파트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다수는 한국하모니카오케스트라 회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 제2의 인생을 선물한 고마운 악기

모양새만 봐서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하모니카는 고대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었다고 한다. ‘생(笙, Sheng)’이라고 불렸던 이 악기는 하모니카의 핵심 원리인 ‘프리 리드(Free Reed, 자유 진동 리드)’가 특징이었던 것이다. 이 중국 고대 악기는 한국에선 생황으로 발달했고 서양으로 전해져서 19세기 초 독일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다. 하나의 악기로 여러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들과 달리 하모니카는 특정 키(조성)에 맞춰 리드가 배열되어 있다. 종류마다 고유 음색과 연주 스타일이 있는 것이다. 작은 악기로 얼마나 다양하겠나 싶지만 하모니카의 종류는 무려 150여 가지나 된다. 덕분에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모니카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벌써 20년 넘게 하모니카와 함께해왔네요. 어렸을 때 하모니카를 접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매력을 느낀 건 김광석의 음악에 빠지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히 대만 하모니카 연주자들의 내한 공연을 보고 새로운 음악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도전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어요.”

나래울 하모니카 양상블 시절부터 동호회 활동을 해온 양미향 회원은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했음에도 하모니카의 무한한 매력을 아직 알아가는 종이라고 한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블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진아 회원은 하모니카와 인연을 맺은 지 8년째라고 한다. 아들이 먼저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찌다 보니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하모니카의 장점은 너무 많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전에 사물놀이 연주를 했다는 이정은 회원은 하모니카의 매력이 여러 악기와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의 목소리와도 잘 어울리죠. 악기 종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주법이 있어요. 다른 악기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하모니카만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다양성이 특징이죠.”

회원들의 말을 듣고 보니 회원들의 연습 장면이 새롭게 다가온다.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의 무한한 매력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즐기고 있으니 이 순간 퀸&킹 하모니카 양상블 회원들보다 행복한 이들이 또 있을까. 그 즐거운 감정은 연습실에 울려 퍼지는 ‘퐁당퐁당’ 및 동요메들리에 충만하게 실려 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곡 중에 왜 동요일까? 알고 보니 취재 시점 당시 얼마 후인 11월 29일 예정된 화성시 동요대회에 공연 제의가 와서 한창 관심으로 돌아가 연습 중이란다. 하모니카 연주로 듣는 ‘퐁당퐁당’은 다른 버전보다 유난히 귓속을 간질거리며 파고든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블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을

해왔다. 모든 공연이 소중했을 테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무엇일까? “여러 공연을 해왔지만 2020년 코로나19 당시 6월 고양시 킨텍스 야외공연장에서의 ‘2020 드라이빙 씨어터’ 공연과 독도에서의 공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2021년 독도사랑음악회에서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과 독도 선착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태풍에 발이 묶여 하루 늦게 귀가한 적이 있지요.” 복석규 대표는 신정우 지휘자가 이끄는 화성시 소년소녀합창단이 각종 세계 대회 상위권 수상을 훙쓰는 실력 있는 단체라고 덧붙인다.

실력자는 그에 걸맞은 상대를 협연자로 고르게 마련이다. 사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블 회원들의 수상 경력도 해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화려하다. 올해 받은 상만 잠깐 소개하면 제11회 서울국제하모니카대회 소합주 성인부 우수상, 제11회 서울국제하모니카대회 복음 독주 성인부 우수상, 제8회 50+액티브시니어축제 우수상을 수상했고, 제10회 독일 월드컵하모니카페스티벌에서는 방석화 회원이 재즈 독주 부문 4위를, 방석화·방석훈 형제 회원이 함께 양상블 부문 1위와 오케스트라 부문 2위, 김경은 회원이 독주 부문 5위라는 래거를 올렸다. 과연 ‘퀸과 킹’이라는 동호회 이름에 어울리는 빛나는 왕관이다.



## 하모니카가 열어 줄 새롭고 멋진 세상

출중한 연주 실력은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들은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오며 음악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전에는 월 2회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관련 단체를 찾아 봉사를 했다. 지금은 규칙적이진 않지만 월 1회 봉사 공연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성시 희망노인요양원,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복석규 대표는 화성시 생활문화동호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동호회의 이러한 활동에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긴 했지만, 화성시 생활문화동호회는 그 어느 도시보다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성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운영위원장직은 2년 만기라 한 번 더 역임은 가능하지만, 화성시 생활문화동호회의 발전을 위해 젊고 능력 있는 분을 새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연습이 무르익고 잠시 쉬는 시간, 이규용 회원의 유난히 밝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베이스 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이규용 회원은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 배려를 배웠다고 말한다. 함께 어우러져 음악을 완성해야 하는 합주에서는 혼자 앞서가서도 안 되고, 서툰 이는 기다려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한 배려는 일상에도 자연스레 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중호 회원은 하모니카 연주를 취미로 삼고부터 일상이 즐거워졌다고 한다. 특별히 자신 있는 연주곡은 ‘오데니보이’라고. 안창준 회원은 하모니카는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을 위해 즉흥 연주가 가능해 좋다고 이야기한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들은 이번 호 《화분》 주제인 경험소비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다. 스스로가 즐겁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하기 힘든 일상에서 기꺼이 자신을 위해, 또 남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들. 이름 그대로 ‘퀸과 킹’임에 틀림 없다.

“단기적인 목표는 제9회 화성하모니카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일과, 화성시 동요대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주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보다 먼 목표는 퀸&킹 하모니카 양상들을 화성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것입니다. 하모니카를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활동도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복석규 대표는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조건 없이 출연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퀸&킹 하모니카 양상들이 앞으로 화성 시민과 그 외 전국의 많은 사람에게 무궁무진한 하모니카 음악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 하모니카 연주 동호회 ‘퀸&킹 하모니카 양상들’

활동기간 2017년~

회원구성 50~60대 남녀

활동문의 031-222-7737

# 신년콘서트부터 겨울방학 어린이공연까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6년 1~2월 시즌 공연 프리뷰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6년 1월, 신년콘서트를 시작으로 겨울방학을 맞을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보고 듣고 움직이며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매는 새롭게 오픈한 화성시 공연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해에는 가족과 함께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를 만나보자.

글 공연기획팀 김연희

오방신이 이끄는 신명의 세계로!  
신년콘서트 <이희문 오방신과>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해의 첫 문을 여는 강렬한 신명의 무대! Traditional K-팝의 선두주자이자 변신의 아이 콘, 경기소리꾼 이희문이 오방신으로 분해 관객을 고통과 번뇌의 속세에서 벗어난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신명을 깨우는 소리와 폭발적인 에너지가 뒤섞여 새해의 복과 기운을 불러들이는 특별한 시간. 잠시나마 속세를 잊고, 오방신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떠나볼 준비가 되었는가?



푸른 초원에서 찾아가는 ‘나만의 용기’  
뮤지컬 <푸른 사자 와니니>

아프리카 초원 한가운데, 약하고 외로운 작은 사자 와니니가 있다. 무리에서 버려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는 뜻밖의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며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배우게 되는데… 작은 사자 와니니가 결국 어떤 힘으로 자기만의 초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



공주가 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고블린파티 <공주전>

일상에서 흔히 보던 물건들이 춤추고 변신하며 수많은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직업이나 역할에 갇히지 않은 ‘공주’들은 저마다 색과 향기를 품은 네 계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두려움과 기쁨을 나누며 더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배우는데… 그 여행의 끝에서, 공주들은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될까?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이야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오브제극 <어둑시니>**

단 하루, 요괴들이 인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특별한 날. 사라져가던 기억과 빛을 잃어가던 어둑시니 앞에 외로운 한 아이가 나타난다. 점점 작아지고 흐려지는 자신을 보며 두려움에 떨던 어둑시니는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길을 찾기 시작한다. 과연 어둑시니는 스스로의 빛을 되찾을 수 있을까?



## 신년콘서트 &lt;이희문 오방신과&gt;

일시 1.10.(토) 17: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R석 3만 원 / S석 2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 뮤지컬 &lt;푸른 사자 와니니&gt;

일시 2.7.(토)~8.(일) 14: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R석 6만 원 / S석 4만 원  
 대상 48개월 이상



## 고블린파티 &lt;공주전&gt;

일시 2.20.(금) 11:00 / 2.21.(토) 14: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2만 원  
 대상 36개월 이상



## 오브제극 &lt;어둑시니&gt;

일시 2.28.(토) 11:00, 14: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36개월 이상

상세정보 및 예매  
[hac.hcf.or.kr](http://hac.hcf.or.kr)  
 공연 문의  
 1588-5234



## 화성예술의전당

동양인 최초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지휘자 정명훈이 선사하는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축하 무대  
**<정명훈&KBS교향악단 연주회>**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독보적인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바이올리ニ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Leonidas Kavakos)가 선사하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 그리고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완성될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의 그 깊고 당당한 교향악의 향연!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기획**  
**2026.1.15.목**

**HAC**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정명훈 & KBS 교향악단 연주회**  
협연\_Vn.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Leonidas Kavakos)  
2026. 1. 15.(목) 19:30

티켓가격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관람연령 : 8세(초등학생)이상  
문의 : 1551-2313  
위치예산 : 2,000백만원

주최 [화성문화재단](#) 주관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예술의전당

97

일시 2026.1.15.(목) 19:30 |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VIP석 11만 원 / R석 9만 원 / S석 7만 원 / A석 5만 원 / B석 3만 원 |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김성진 지휘자가 선사하는 고품격 신년 국악 무대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with 김준수

동서양의 음악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김성진 마에스트로의 지휘 아래, 소리꾼 김준수의 깊은 소리가 더해졌다. 새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우리 가락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나보자.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기획  
2026.2.1.일 17:00**

**HAC CHOICE**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with 김준수  
 지휘 / 예술감독 김성진  
 2026. 2. 1.(일) 15:00

티켓가격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 8세(초등학생)이상  
 문의 : 1551-2313  
 위탁예산 : 2,000백만원

주최 화성문화재단 주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의전당 Hwaseong Arts Center

일시 2026.2.1.(일) 15:00 |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5만 원 / S석 3만 원 / A석 2만 원 |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의 감성을 화성에서 만나다!  
 핵심 혼연 단원 13인이 선사하는  
**〈필하모닉 앙상블 신년음악회〉**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의 핵심 혼연 단원들이 들려주는 비엔나 전통의 청명한 사운드!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정제된 앙상블과 깊이 있는 소리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만날 수 있다.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기획  
2026.2.7.토 17:00**

**HAC CHOICE**

**필하모닉 앙상블 신년음악회**  
 2026. 2. 7. (토) 17:00

티켓가격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관람연령 : 8세(초등학생)이상  
 문의 1551-2313  
 위탁예산 2,000백만원

주최 화성문화재단 주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의전당 Hwaseong Arts Center

일시 2026.2.7.(토) 17:00 |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VIP석 11만 원 / R석 9만 원 / S석 7만 원 / A석 5만 원 / B석 3만 원 |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2025년 전석 매진 신화를 쓴 화제의 창작발레, 다시 무대에 오르다

### 〈창작발레 갓(G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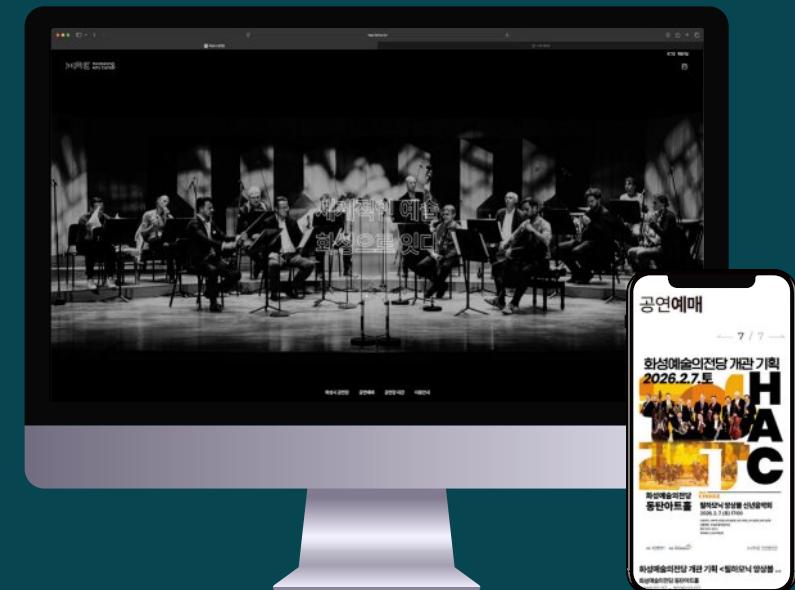
2025년 한국 발레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윤별발레컴퍼니의 2026년 투어가 시작된다. 화성예술의전당에서 만나 볼 이번 공연에서는 Mnet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은 강경호, 김유찬, 정성욱 등이 윤별 대표와 함께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그들은 이번 공연으로 한국 발레계의 가능성과 참신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2026.2.27.(금) 19:30 | 장소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  
가격 R석 8만 원 / S석 7만 원 / A석 5만 원 |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 화성시 공연장 통합 홈페이지 오픈!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을 비롯 화성예술의전당까지,  
화성시 내 공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공연 소식을 만나보세요.



[hac.hcf.or.kr](http://hac.hcf.or.kr)

# Culture Calendar



12 December

- 5 ●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페스티벌 양상별: 현을 위한 세레나데〉  
12.5.(금) 19:00 / 남양성모성지

- 6 ●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신박 듀오: 더뉴브의 추억〉 12.6.(토) 14:00 / 남양성모성지  
〈임동혁: 이방인의 서사시〉 12.6.(토) 17:00 / 남양성모성지

- 7 ● 화성특례시 남양성모성지 클래식 음악제  
〈문태국: 비호 무반주 첼로〉 12.7.(일) 15:00 / 남양성모성지  
〈이리 듣는 해설: 비호 B단조 미사〉 12.7.(일) 17:00 / 남양성모성지  
〈페스티벌 합창단&오케스트라: 비호 B단조 미사〉  
12.7.(일) 18:00 / 남양성모성지

- 10 ● 지역 예술 유통 기반 강화 기획전시 <Next Ground: H>  
〈지역작가 초대전〉 12.10.(수)~12.15.(월) / 인사이트센터  
〈홍보 전시〉 12.10.(수)~12.29.(월) / 인사이트센터

- 20 ● 발레 <호두까기 인형>  
12.20.(토) 14:00, 18:00 / 화성아트홀

- 27 ● <금난새&성남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2.27.(토) 16:30 / 화성예술의전당

- 31 ● 화성예술의전당 개관기념식&제야콘서트  
12.31.(수) 21:30 / 화성예술의전당  
● 2025 화성시 송년 제야 행사  
12.31.(수) / 음주사

- 공연
- 전시
- 축제
- 행사
- 기타



1 January

- 10 ● 신년콘서트 <이희문 오방신과>  
1.10.(토) 17:00 / 화성아트홀

- 15 ● <정명훈&KBS교향악단 연주회>  
1.15.(목) 19:30 / 화성예술의전당

2 February

- 1 ●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경기시니위오케스트라 with 김준수  
2.1.(일) 15:00 / 화성예술의전당

- 7 ● 겨울방학 어린이공연 페스티벌 뮤지컬 <푸른사자 와너니>  
2.7.(토) 14:00 / 화성아트홀  
● <필하모닉 양상별 신년음악회>  
2.7.(토) 17:00 / 화성예술의전당

- 8 ● 겨울방학 어린이공연 페스티벌 뮤지컬 <푸른사자 와너니>  
2.8.(일) 14:00 / 화성아트홀

- 20 ● 겨울방학 어린이공연 페스티벌 고블린파티 <공주전>  
2.20.(금) 11:00 / 반식아트홀

- 21 ● 겨울방학 어린이공연 페스티벌 고블린파티 <공주전>  
2.21.(토) 14:00 / 반식아트홀

- 27 ● <창작발레 것(GAT)>  
2.27.(금) 19:30 / 화성예술의전당

- 28 ● 겨울방학 어린이공연 페스티벌 <어둑시니>  
2.28.(토) 11:00, 14:00 / 반식아트홀

# letter

《화분》 가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화성시 관광안내소에 비치돼있어요.  
지금은 우편물로 받아요~^^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정조효문화제 소식, 매향리 관련 소식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화성시 새로운 관광 지역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성시 2025년 행사 정리해주세요.  
2026년 계획된 행사 날짜도 잘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화성 동탄 우체국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발안만세시장을 맛있게 즐기는  
31가지 방법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영화 관련 소식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책이 작아져서 참 좋아요. 구독하고  
싶은 책입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동탄 우체국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interview 3  
건축과 음악이 만들어낸 울림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시대별 작곡가 탐구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성예술의전당 프로그램 기대합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봉담도서관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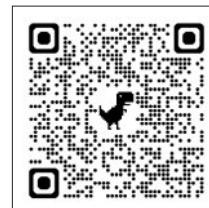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예술과 더 가까이 만나다 - 화성  
아트버스 & 화성특례시 서울로 365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화성시의 주 특산물과 내 고장 자랑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사진전 관련 내용을 실어주세요.  
사랑방 같은 재단의 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화분》 독자 만족도 조사

《화분》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의미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 조사에 응답  
설문기간 2025년 12월 27일까지  
당첨발표 2025년 12월 30일(개별 연락)

# Review

## 2025년 《화분》 제작 후기

한 해 동안 《화분》은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까요?

화성 시민의 문화예술을 꽂피우는 《화분》에 담긴 내용을 돌아보며, 《화분》을 만든 사람들과 《화분》을 읽어주신 여러분이 함께하는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화분》은 페이지를 늘리고 크기는 줄여, 소장 가치 있는 문화 매거진이 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수의 독자께서 작아진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 덕에 읽기 좋고 보기에도 좋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사이즈도 콤팩트해지고 훨씬 친환경,  
절약형 소재라는 느낌을 받아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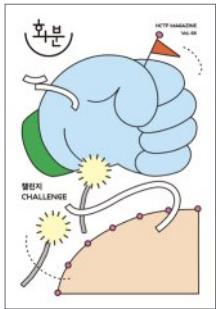
“저는 이번 가을호가 너무나 맘에 듭니다. 책 크기도 작아서 손에 쉽게 잡히고 일반 서적처럼 친근해졌어요. 칭찬합니다!”

“바뀌는 계절마다 집안에 화분이 하나씩 놓이는 느낌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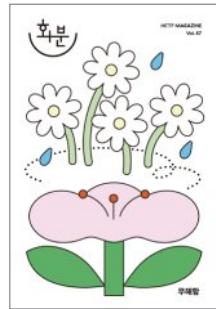
### 《화분》의 1년 돌아보기

2025년의 《화분》은 문화예술계 트렌드를 조명하고, 그에 맞는 알찬 기사들로 재단장했습니다. 매호 하나의 트렌드 단어를 선정하고 그와 어울리는 문화예술인 인터뷰와 전문가 칼럼, 화성시 관광지 등을 소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교양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Vol. 66 봄과 여름 사이  
**챌린지**

올해의 첫 《화분》 주제는 '챌린지'였습니다. 높은 이상을 향한 치열함보단, 나와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나아가는 성장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Vol. 67 여름과 가을 사이  
**무해함**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는 포근한 무해함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상의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Vol. 68 가을과 겨울 사이  
**로컬리티**

지역의 색을 지키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는 '로컬리티'는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가진 화성특례시에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이곳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Vol. 69 겨울과 봄 사이  
**경험소비**

소유보다 경험에 무게를 두는 트렌드에 따라, 예술 경험이 중요성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화성 시민들의 경험소비를 촉진할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소식을 담았습니다.

《화분》은 문화예술계 안팎의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겼습니다.

그만큼 예술가들과 함께한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었다는 독자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은 품을 들여야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글인 만큼 독자들께 확실히 생생한 감동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알찬 인터뷰 늘 잘 보고 있어요.”

“음악에 막연하게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봐서 좋았습니다!”

“이남현 성악가의 인터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화분》은 매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전문가 칼럼을 수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형 글보단, 주제와 예술을 엮어 해석하는 재밌는 글이길 바랐습니다.

더불어 에세이툰으로 주제에 대한 독자의 사유와 실천을 돋고자 했는데요.

편집부의 이런 의도를 알아주신 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내용도 좋지만 이런 트렌드를 읽는 칼럼이 있어서 더 재밌게 읽고 있어요.”

“(여름호 에세이툰을 읽고)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 모두 작은 실천부터 함께 노력해 보려 합니다.”

“영화 칼럼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성시 여행지, 공연 및 행사 소식을 알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기존의 예술 분야에서 관광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그에 따라 《화분》도 화성시의 실내외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나열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주말에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체험 정보나 시의성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화성에 이렇게 많은 문화기획전이 있는지 몰랐어요.  
캘린더 보고 시간 맞춰 여기저기 보러 다니려니 너무 행복해졌어요.”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가까운 우리 동네에 멋진 곳을 소개해줘서 좋다.”

“(발안만세시장 여행기를 읽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이웃들의 이야기가  
늘 궁금하고 좋다. 발안만세시장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어졌다.”



《화분》독자들은 부족한 점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원하는 독자들이 많았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화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콘텐츠(글,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한 화성시와  
문화 관련 소재들)의 비중을 대폭 늘려 시민참여, 시민주도의  
문화관광 발전 가치를 구현해나갔으면 합니다.”

“독자 참여 코너가 많이 없는 점이 아쉽고,  
어린이 관련 기사가 많아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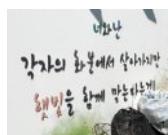
## 《화분》을 만든 사람들의 한마디

《화분》을 펼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글을 읽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마음을 글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하는 예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분》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손때 묻은 앨범처럼 느껴집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여러분이 올 한해를 따뜻하게 기억하는 북마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수림 편집팀장

올해는 사람들이 보고 재미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매호 제작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2026년에는 책장에 수집하고 싶은, 의미가 있는 글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6년의 《화분》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한 해 동안 함께 해준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예빈 기획



올봄 어느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글귀가 있다. 이 문장이 1년간 《화분》을 만드는 데 많은 영감을 줬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인터뷰와 화성 시민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우리와 어느 순간 마주쳤고, 함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혹시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문득 외로워질 때가 있다면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화분》을 펼쳐보길.

차예지 에디터

재단에서 발행되는 홍보용 책자가 아닌 화성시의 모습을 담은 문화예술 매거진으로 변화하고자 여러가지 실험을 했다. 기획과 편집이 그 실험에 같이 힘을 모아줘 디자인 작업 내내 즐거웠고 앞으로 더 많은 독자와 만나길 기대한다.

김형창 편집디자이너

1년동안 《화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김성재 포토그래퍼



올해 여러분에게 《화분》은 어떤 의미였나요?  
QR코드를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분》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place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은 분은 031-8015-8112로 문의 주세요.

| 배포처         | 동탄복합문화센터      | 작은도서관    | 호텔            |
|-------------|---------------|----------|---------------|
|             | 화성시미디어센터      | 샘내작은도서관  | 라비돌리조트        |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푸르미르호텔   |               |
|             | 화성아트홀         | 비봉작은도서관  |               |
| 반석아트홀       | 마도작은도서관       | 기타       |               |
|             | 누림아트홀         | 팔탄작은도서관  | 독립서점 모모책방     |
|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 양감작은도서관       | 갤러리문화아지트 |               |
|             | 호수나무작은도서관     | 달팽이 그림책방 |               |
| 도서관         |               | 바이올린하우스  |               |
|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문화시설     | 신자연주의공방       |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노작홍사용문학관      |          | 공방 7보다        |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화성ICT생활문화센터   |          | 서울건치과         |
| 왕배푸른숲도서관    | 모두누림센터        |          |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유앤아이센터        |          |               |
|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               |
| 봉담도서관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               |
| 병점도서관       | 소다미술관         |          |               |
| 삼괴도서관       | 엄미술관          |          |               |
| 서연이음터도서관    |               |          |               |
| 송산도서관       | 카페            |          |               |
|             | 송린이음터도서관      | 다락       |               |
| 정남도서관       | 다원            |          |               |
| 진안도서관       | 손커피연구소        |          |               |
| 태안도서관       | 차마시는뜰         |          |               |
| 노을빛도서관      | 카페오카페         |          |               |
|             | 카페 라온트리       |          |               |
|             | 디안            |          |               |
|             | 섹션            |          |               |
|             | 프라하           |          |               |

《화분》은 웹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waboon.hcf.or.kr](http://hwaboon.hcf.or.kr)



화성시문화관광재단  
SNS에서  
재단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